

집의 개념을 바꾼 건축가, 코르뷔지에-잔느레展 개최

26, April, 2016 | 고은지 기자

page 1 of 2

국제갤러리서 5월 29일까지... '찬다가르 프로젝트' 소개

집을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안식처이자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꾼 세계적인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와 피에르 잔느레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제갤러리는 오는 5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 2관에서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인도 찬다가르 1951-66'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사촌 사이인 코르뷔지에와 잔느레는 50년간 협업하며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51년 시작된 인도 펀자브주(州)의 주도인 찬다가르에 대규모 정부건물을 설계한 '찬다가르 프로젝트'다.

코르뷔지에와 잔느레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찬다가르를 행정도시로 기획하고자 한 인도 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사당, 고등법원 등 주요 행정건물을 설계했다.

이들은 집무실 책상, 응접용 테이블, 도서관 책상과 의자까지 인도 현지의 토속적인 재료와 장인의 전통적인 공예기술을 접목해 만들었다.



통나무 커피테이블과 캔거루 의자. [사진: Keith Park·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디자인이 단순하고 고급 재료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견고하고 정교하게 가공한 것이 이들 작품의 특징이다.

이번 전시는 찬디가르 프로젝트 당시 만들어진 가구를 중심으로 구성돼 편리성과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코르뷔지에와 잔느레의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갤러리 관계자는 "특히 잔느레는 이후 찬디가르 건축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현지인들에게 모더니즘적 건축 양식을 전파하는 등 인도의 건축사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그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찬디가르의 수크나 호수에 뿌려졌다"고 말했다.

국제갤러리는 2005년 '장 프루베', 2007년 '샤를로트 페리앙', 2013년 '장 로이에' 등 디자인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매년 열고 있다.



도서관 책상. [사진: Keith Park-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